

# 수준 높은 '어린이공연' 연중 장성서 펼쳐진다

## 군, 12월까지 문화예술회관서 매달 기획 공연 21일 뮤지컬 '나쁜 말 먹는 괴물'로 시작 알리

매년 명품 어린이 공연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는 장성군이 올해 더욱 풍성한 기획 공연을 마련했다.

18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어린이 공연'을 주제로 3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지난해보다 2편을 늘려 총 10편의 공연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공연은 21일에 열리는 어린이 뮤지컬 '나쁜 말 먹는 괴물'이다. 같은 이름의 그림책이 원작으로, 무심코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해주는 모험극이다.

예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장성군 누리집 또는 문화교육과(061-390-8578, 8599)에 전화해 진행하면 된다. 장성군민

은 예매 당일 오후 6~8시, 예매 다음날 오후 2시까지 현장 예매도 가능하다.

4월 12일에는 베스트셀러 그림책 '사과가 콩', 5월 9일은 아이들이 사랑하는 케이(K)-히어로 판타지 뮤지컬 '똥북이 할멈', 6월 20일에는 미술과 공연이 어우러진 환경극 '에코백'의 막이 차례로 오른다.

7월 25일에는 서울어린이연극상 대상에 빛나는 '목 짧은 기린 지피'가 가족 관객들을 기다린다. 고정욱 작가의 동화를 바탕으로 했다. 8월 8일은 전래동화 '아기돼지 삼형제', 9월 19일은 명작동화 뮤지컬 '알라딘'을 선보인다.

10월 24일에는 국내 창작 그림책 최초로 100만부를 돌파한 김정생 작가의 '강아지 똥'을 극화한 뮤지컬이 관객들과 만난다. 뮤지컬 '강아지 똥'은 2024년 영국 애딘버러페스티벌 아시아어츠어워즈에서 최우수 공연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11월 14일은 서커스와 미술을 결합해 환상적인 불거리를 선사하는 '더 매직 서커스'가 기다린다. 올해 마지막 공연인 12월 12일 '산타클로스와 브레멘 음악대'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이다. 공연은 1일 2~3회 열리며 관람료는 4000~6000원 선이다. 어린이는 절반 가격에 볼 수 있다. 10편의 공연을 관람할 때마다 도장(스탬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스탬프 수집 이벤트'도 마련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수준 높은 어린이 공연을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다"며 "많이 찾아 주셔서 아이와 함께 소중한 시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이형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국립나주박물관은 고대 영산강 유역의 마한 문화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만날 수 있는 어린이박물관 '안녕, 마한! 우리 마을 이야기'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는 27일 정식 개관한다. 사진은 어린이 박물관 시범운영 모습. 사진제공=나주시

## 국립나주박물관, 27일 '어린이박물관' 정식 개관

### 어린이 눈높이 맞춰 마한 문화 소개... "역사 공부·놀이 경험"

국립나주박물관은 고대 영산강 유역의 마한 문화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만날 수 있는 어린이박물관 '안녕, 마한! 우리 마을 이야기'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는 27일 정식 개관한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신축한 복합문화관 내에 새롭게 조성된 어린이박물관은 고대 영산강 유역에 살던 마한 사람들의 생활과 독특한 고분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과 아날로그 체험을 결합한 어린이 체험형 놀이 공간

이다. 어린이박물관의 주요 전시 내용은 '풍요로운 나라, 마한: 영산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넓은 들에서 곡식을 기르며 살았던 마한 사람들의 일상을 체험하는 수확의 공간', '따뜻한 공간, 부엌: 강과 들에서 얻은 재료로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밥상을 차려보는 공간', '마한의 공방: 알록달록 옥 장신구와 대형 금동관을 만들어 보며 그 의미를 이해하는 공간', '무덤에 담은 마음: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

의 상징인 '독널'의 제작 과정을 알아보고, 실제 크기의 독널 안에 들어가 보거나 원통모양 토기처럼 무덤 위를 장식해 보는 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복합문화관에 새로 조성된 어린이박물관은 나주 신촌리 고분이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조망을 갖추고 있다.

창 너머로 펼쳐지는 고분 풍경과 전시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어린이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 관람 후 고분을 바라보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심터의 공간으로 카페도 자리할 예정이다.

어린이박물관이 신설된 복합문화관은 684.8㎡의 전시·체험 공간과 어린이를 위한 공연이 진행될 강당 474㎡(300석), 3개의 교육실 308㎡ 등으로 구성된 전남 최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다.

국내 최고 수준의 어린이박물관이다. 김상태 국립나주박물관장은 "새롭게 마련한 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를 공부하 아닌 즐거운 놀이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마한의 옛 땅에서 역사와 문화를 만나고, 즐길 수 있는 어린이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조원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 보성군-농관원-농어촌공, 농민 편의 증진 모색 공익직불제 업무협약회서 교육·홍보 강조

보성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가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모쳤다. 군은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성사무소에서 '2026년 공익직불제 업무협약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회는 2026년 공익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 편의 증진과 소득 안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회에는 보성군과 읍면 담당 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성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공익직불제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이들은 2026년 달라지는 공익직불사업 홍보, 직불금 감액 우려 농지에 대한 사전 안내, 의무교육 미이수자 이수율 제고 방안, 전락 작물 직불 이행점검 적합률 제고



보성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가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모쳤다. 군은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성사무소에서 '2026년 공익직불제 업무협약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업무협약회 모습. 사진제공=보성군

## 구례,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착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조성 등 25곳 점검

구례군은 최근 섬진강 레인보우워크 등 주요사업장 2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군 주요 역점사업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섬진강 레인보우워크 조성, 지초봉 주변 관광경승지와 등 관광자원화 사업, 선월 자연재해취약지구 정비, 구례읍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등 재해 예방 사업, 청년·로인인 하우스 등 인구 감소 대응 사업, 구례힐러티움, 관광특구 환경개선 등 상권활성화 사업,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조성 등이다.

이ائل라 공설운동장과 제2보조경기장 개보수 진행상황 등 경기시설을 포함해 전남체전 준비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



구례군은 최근 섬진강 레인보우워크 등 주요사업장 2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현장점검 모습. 사진제공=구례군

## "완도해양치유센터 솜품 공모전 참여하세요" 군, 21일부터 4월까지 진행...올해 시상 규모 확대

완도군은 완도해양치유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치유객 유입을 위해 '제2회 완도해양치유센터 솜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완도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해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치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솜품에는 완도해양치유센터 체험과 함께 완도 주요 관광지 2개소 이상을 방문한 영상을 담아야 하며, 개인·팀당 1점을 출품할 수 있다.

제작된 영상은 개인 SNS 계정에 업로드한 후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보다 시상 규모를 확대했다.

시상 규모는 1등(마스터 치유상) 100만원, 2등(오션 감동상) 2명 각 50만원, 3등(힐링 로고상) 3명 각 10만원이다.

우수작은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전을 통해 독보적인 완도해양치유센터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시설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센터 이용객들의 생생한 체험 후기가 널리 공유되어 많은 분들이 해양치유의 효능을 느껴볼 수 있도록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



곡성군은 최근 수출 딸기 농업인연구회 농가를 대상으로 금실 딸기 재배기술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 사진제공=곡성군

## 곡성, 금실 딸기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

### 품질관리 요령·이론 교육 논의

곡성군이 국내 육성 신품종인 '금실' 딸기 재배 기술의 확산을 통해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군은 최근 수출 딸기 농업인연구회 농가를 대상으로 금실 딸기 재배기술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금실 딸기의 안정적인 재배 기술을 정착시키고 곡성 딸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곡성멜론 주식회사 소속 수출딸기 농업인 연구회 농가 12명이다.

현장 중심 교육을 위해 장소는 각 농가에서 진행된다. 군은 농가 육묘장을 직접 방문해 육묘 관리 요령과 재배 환경을 점검하는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금실 딸기 재배기술과 수출용 품질관리 요령에 대한 이론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곡성군수출딸기 농업인 연구회는 현재 약 2.8ha 규모로 수출용 딸기를 재배하고 있으며, 매년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기존 수출 품종이었던 신향에서 2024년부터 수출 전용 품종인 금실로 전환해 해외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금

실은 과형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저장성이 좋아 동남아 수출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군의 딸기 수출 규모는 약 34t으로 예상되며, 수출액은 약 8억원 정도로 전망된다.

주요 수출처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이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산 프리미엄 딸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 물량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농가들은 국내 딸기 가격에 비해 수출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수출 재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수출딸기 농가 육성을 위해 농촌진흥청, 전남농업기술원과 협업체에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딸기 모종비 지원과 육묘시설 지원, 수출 관련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금실 딸기는 저장성과 품질이 우수해 수출시장에 적합한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현장 중심 기술 지도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곡성 딸기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진 기자 hnnews1@